

太陰形에 관한 형상의학적 고찰

김종원 · 옥진아 · 전수형 · 강경화 · 석화준¹ · 김규곤²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의학연구소, 1: 본디올수정 한의원, 2: 동의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Perspective on Taeum Type in Hyungsang Medicine

Jong Won Kim, Jin Ah Ok, Soo Hyung Jeon, Kyung Hwa Kang, Hwa Joon Suk¹, Kyu Kon Kim², Yong Tae Le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BondiolSooJung Oriental Clinic, 2: Department of Data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According to 《HwangJeNaeKyung》 and 《DongOuiBoGham》, Taeum is strongly related to dampness, earth, and center. The origin of Taeum is dampness and the presentation of it is dryness, thus spleen plays a greater role than lung in physiologic and pathologic aspect. Taeum meridian cooperates with Soeum and Guelum meridian, and spreads yin gi through spleen and lung meridian. Among six meridian types that are invented by Ji-San, Taeum type possesses lowered eyes and nose and displays characteristics of Taeum disease. Instead of five jang organs and six bu organs, meridians are major factor of Taeum type. Thus SiDongByung (disease of gi) and SoSaengByung (disease of blood) are considered more significantly than internal and external symptoms of organs. Personality of Taeum type is realistic, pragmatic, diligent, and occasionally selfish. Medications for Taeum type are described as following. GwakHyangJungKi-San or InSamYangWi-Tang can be considered for the complication of intrinsic and extrinsic diseases, which are caused by yin symptom of SangHan. If cold stomach affected by Taeum disease causes an abdominal pain and diarrhea, YiJoong-Tang or PalMiYiJoong-Tang are suggested.

Key words : HyungSang medicine, Ji-San(芝山), meridian types, Taeum(太陰) type, spleen, dampness

서 론

太陰에 대하여 『內經』에서 “太陰之上 濕氣治之¹⁾”, “太陰所至爲濕生²⁾”, “太陰司天 其化以濕³⁾”이라 하였고, “其令濕 其臟脾 其應長夏⁴⁾”, “土濕受邪 脾病生焉⁵⁾”, “脾者土也. 治中央⁶⁾”이라 하였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太陰濕土⁷⁾”, “太陰從中 濕土坐⁸⁾”라 하여 太陰의 특성이 濕이고, 土와 연관되며, 中央이라는 것을 밝혔다.

太陰經은 少陰經, 厥陰經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脾經과 肺經을 통하여 주로 陰氣를 敷布한다⁹⁾. 足太陰脾經은 엄지 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장딴지 안쪽과 넓적다리 안쪽으로 올라가 腹部로 들어가고, 舌根에 이어져 舌下로 분산된다¹⁰⁾.

手太陰肺經은 中焦에서 시작하여 겨드랑이 밑에서 팔 안쪽을 따라 내려가서 寸口로 들어가 魚際部에 이르고,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온다¹¹⁾.

人體는 精氣神血, 五臟六腑, 身形, 經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靈樞·經脈篇』에서는 “人經不同 經脈異所別也¹²⁾.”라 하여 사람마다 경락의 발달에 차이가 있어 각기 고유한 형상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芝山은 사람마다 발달된 12경맥의 차이를 관찰하고, 이의 生理, 病理, 診斷 및 治療에 응용하기 위하여 六經形을 창안하였으며 그 중 太陰形은 太陰經이 발달된 사람이므로, 五臟六腑보다는 經絡이 중심이 된 형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9/02/07 · 수정 : 2009/05/17 · 채택 : 2009/05/26

1) 『今釋黃帝內經素問』, 六微旨大論, p. 601

2) 『今釋黃帝內經素問』, 六元正紀大論, p. 745

3) 『今釋黃帝內經素問』, 至真要大論, p. 800

4) 『今釋黃帝內經素問』, 五常政大論, p. 643

5) 『今釋黃帝內經素問』, 至真要大論, p. 836

6) 『今釋黃帝內經素問』, 太陰陽明論, p. 318

7)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890

8)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946

9) 이용태, 장부상통과 芝山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3): 617-623

10) 『今釋黃帝內經靈樞』,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34-135

11)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29

12)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59

상이다.¹³⁾

따라서 太陰形은 太陰經 즉 足太陰脾經과 手太陰肺經에 해당되므로 脾濕 · 肺燥의 관계가 형성되고, 濕이 本이고, 燥는 標이므로 脾와 肺중 脾經의 生理, 病理가 우선이 된다¹⁴⁾.

太陰은 陰中之至陰으로 太陰形의 형상은 이목구비의 浮沈昇降으로 보아 눈과 코가 모두 내려와서 下降하는 형상으로 나타나며, 코가 내려갔다는 것은 배가 차다는 뜻으로¹⁵⁾ 명치끝이 자주 아프며, 헛배가 불러 오르기도 하고, 泄瀉증상이 많으며, 또 性情의으로는 실리적이고 타산적이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성실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¹⁶⁾.

그간 六經形중 陽明形과 太陽形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나, 太陰形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임상에서 접하는 太陰形의 다양한 질환과 치료에 形象醫學적인 관점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기에 芝山이 제시한 太陰形의 형상, 생리, 병리 및 성정, 그리고 太陰形에 사용되는 처방을 정리하고, 芝山先生 臨床學特講의 임상례와 본디를 임상연구소 및 본디를 수정한의원에서 치료한 13건의 太陰形의 임상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六經形 (太陽, 少陽, 陽明, 太陰, 少陰, 厥陰)

12 經脈은 手足三陰三陽經으로 구성되며 각각 氣血多少가 다르다.

經絡의 名稱은 手足과 三陰三陽과 臟器의 이름이 함께 붙는다. 그리고 三陰三陽에는 六氣와 五行이 相應되어 있다. 예를 들어 ‘足太陽膀胱經’이라 하면 手足 중 下部인 足에 해당하며, 三陰三陽 중에서는 太陽寒水에 속하고, 臟腑로는 膀胱에 속한다.

이와 같이 經絡은 陰陽五行, 五運六氣, 臟腑, 氣血, 四肢[手足] 등과 統體의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형상 學會에서는 傷寒 處方을 응용할 때 六經에 대한 諸學說 중에서 經絡說, 臟腑說, 氣化說, 部位說, 六經地面說 등을 함께 연결하여 臨床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經絡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六經도 太陽形, 少陽形, 陽明形, 太陰形, 少陰形, 厥陰形 등의 形象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形象은 물론 全身을 살피지만 특히 얼굴에서 코와 눈의 昇降氣勢와 顏面의 突出되고 陷沒함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¹⁷⁾(Table 1).

2. 太陰의 概念

1) 太陰所至爲濕生¹⁸⁾, 太陰司天 其化以濕¹⁹⁾

太陰의 氣가 이르면 濕이 生하고, 太陰이 司天인 해는 濕氣가 流行한다.

2) 太陰爲開²⁰⁾

三陰經중 太陰經을 陰中之陰으로 開라고 하였고, 生理機能은 三陰에 氣를 主出하고, 敷暢 敷布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3) 太陰은 長夏에 관련되고²²⁾, 濕에 해당한다.

일년중 長夏에 해당되는 계절은 太陰에 屬하며, 濕이 旺盛한 氣候이다.

4) 太陰은 子에 해당된다²³⁾.

“七月 秋氣始至 故曰少陰 十一月 少陰之氣大 三月 少陰氣厥²⁴⁾” 이라 하여, 일년중 陰氣는 7월에 生하여 11월에 旺盛해지고, 3월에 消盡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子에 해당되는 11월은 萬物의 氣가 모두 內部에 潛藏되는 시기인 까닭에 脾의 運化作用이 失調되어 脹病을 앓는다.

5) 中央生濕 濕生土²⁵⁾

太陰은 가운데 있으면서 濕土에 자리잡고²⁶⁾, 脾와 肺는 太陰臟器로 濕을 조절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즉 肺는 燥로서 濕을 빨아먹고, 脾는 濕으로 濕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맡는다²⁷⁾.

6) 太陰은 不收不舒하다²⁸⁾.

太陰은 不收不舒하니 太陰의 이르는 곳에 積飲과 痞塊이 생긴다.痞라는 것은 천지가 교합하지 않으면 생기는데,痞가 오래 되면 脹滿이 되기 쉽다²⁹⁾.

7) 脾者 至陰之類 通於土氣³⁰⁾

三陰의 開는 血脈을 周流하고 津液을 四達하며, 太陰經은 少陰經, 厥陰經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脾經과 肺經을 통하여 주로 陰氣를 敷布한다³¹⁾.

Table 1. 六經形의 형상

	太陽形	少陽形	陽明形	太陰形	少陰形	厥陰形
氣血多少	少氣多血	多氣少血	多氣多血	多氣少血	多氣少血	少氣多血
發達經絡	태양경락	소양경락	양명경락	태음경락	소음경락	궤음경락
顏面氣勢	코, 눈이 모두 올라감.	눈은 내려오고 코는 올라감.	顏面이突出함. 눈 두덩과 입술이 두툼함.	코눈이 모두 내려감.	눈은 올라가고 코는 내려옴.	顏面이陷沒함. 눈 두덩이 함몰함.
太陰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太陰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少陽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陽明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太陰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少陰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厥陰形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3. 太陰經의 流注

1) 足太陰脾經의 流注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안쪽 白肉際를 순행하여 核骨을 지난 다음 內踝 앞쪽으로 올라가며, 장딴지 안쪽으로 올라가

13) 이용태 등, 형상의학적 관점에서 본 경락이론의 임상활용,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1(1):149-174
 14) 『今釋黃帝內經素問』, 至真要大論, “少陽, 太陰 從本”
 15) 조성태, 생김 대로 병이 온다. p.137
 16) 조성태, 생김 대로 병이 온다. p.107
 17) 백근기,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3): 424-434
 18) 『今釋黃帝內經素問』, 六元正紀大論 p.745
 19) 『今釋黃帝內經素問』, 至真要大論 p.800

20) 『今釋黃帝內經素問』, 陰陽雜合論 p.107
 21) 이용태, 장부상통과 芝山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3): 617-623
 22) 『今釋黃帝內經素問』, 臟氣法時論 p.260
 23) 『今釋黃帝內經素問』, 脈解 p.458
 24) 양상선 황제내경 태소 음양합 p.117
 25) 『今釋黃帝內經素問』, 陰陽應象大論, p.92
 26)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946
 2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p.37
 2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p.424
 29)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665
 30) 『今釋黃帝內經素問』, 六節臟象論 p.137
 31) 이용태, 장부상통과 芝山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3): 617-623

정강이 뒤쪽을 순행하고, 무릎에서 넓적다리 안쪽으로 올라가 腹部로 들어가서 脾에 屬하고 胃에 絡한 다음, 다시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咽喉를 싸고 돌아 舌根에 이어져 舌下로 분산된다³²⁾.

2) 手太陰肺經의 流注

中焦에서 시작하여 下部의 大腸에 絡하였다가 胃口을 돌아 횡격막을 꿰뚫고 肺에 屬하며, 다시 肺系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팔 안쪽을 따라 내려가서 팔꿈치 중앙으로 내려온 다음, 팔 안쪽 上骨에서 내려와 寸口로 들어가 魚際部에 이르고, 魚際穴을 순행하여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온다³³⁾.

4. 太陰經의 生理 및 病理

1) 足太陰脾經은 主脾하고³⁴⁾, 手太陰肺經은 主肺한다³⁵⁾.

脾經의 是動病은 舌根이 뱃뱃해지고 먹으면 토하며, 胃脘部에 痛症이 오고 腹部가 脹滿하여 트림이 자주 나오며, 大便을 보거나 방귀를 끼면 상쾌하여 경감되는 듯하나, 온 전신이 무거워진다.

所生病은 發病하면 舌根이 아프고,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飲食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며, 心下에 급작스런 痛症이 오고, 大便이 묽거나 下痢를 하며, 小便이 막히고, 黃疸이 발생하며, 바로 눕지 못하고 몸이 굳어 겨우 일어나며, 넓적다리와 무릎 안쪽이 붓고 차가우며, 엄지발가락을 쓰지 못한다³⁶⁾.

肺經의 是動病은 肺部가 脹滿하고 肺氣가 잘 통하지 않아 咳嗽喘息이 나며, 缺盆부위에 통증이 오고, 심하면 두손으로 胸部를 감싸안으며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를 臂厥이라 한다.

所生病은 기침하고, 氣가 上逆하여 喘息이 나며, 목이 잠기고, 煩心, 胸滿이 나타나며, 또한 팔 안쪽이 아프면서 차갑고, 손바닥에 熱이 난다³⁷⁾.

三陰經은 陰成形 즉 同化作用을 주관하여 三陽經의 活動에 필요한 精氣인 血氣, 精神, 營脈을 貯藏하는 機能을 담당한다³⁸⁾.

2) 太陰所至爲雨府 爲員盈 太陰所至爲濕生 終爲注雨³⁹⁾

六氣의 으로 太陰은 濕氣가 모여 萬物을 무성하게 하고 운택케 하며, 病이 들면 水陰積聚, 胃脘痞塞이 발생하고, 脹滿하며, 吐瀉霍亂하고, 身重, 浮腫이 발생한다⁴⁰⁾.

3) 脾者土也 治中央 常以四時長四臟⁴¹⁾

脾는 항상 胃의 精氣를 저장하는데, 土는 萬物을 生成하고, 天地를 분한다. 足太陰脾經은 三陰으로서 그 經脈이 胃를 관통

하고 脾에 귀속되며, 咽喉에 이어지므로 太陰經脈은 胃氣(水穀之氣)를 三陰經으로 운행한다. 五臟六腑는 각기 脾經에 의지하여 陽明으로부터 水穀精氣를 받으므로 脾는 胃를 위하여 津液을 전신에 운행한다⁴²⁾.

脾病의 外症은 얼굴이 누렇게 트림을 자주 하며, 생각이 많고, 맛을 잘 보는 것이다. 內症은 배꼽에 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거나 통증이 있는 것이다. 脾病이 들면 배가 불러 오르고 소화기 안 되며,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한다⁴³⁾.

4) 肺者 臟之長也 爲心之蓋也⁴⁴⁾. 萬物之所以收成也⁴⁵⁾.

肺는 臟의 으뜸이자 心의 덮개이며, 만물을 수렴한다,

脾가 전신으로 散布한 정기를 經脈을 통해 상부의 肺로 모여들게 하여 肺의 宣發肅降작용을 통해 水道를 조절하여 하부의 膀胱으로 흘러가게 한다⁴⁶⁾.

肺病의 外症은 얼굴이 희고, 재채기를 자주 하며, 슬피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울고 싶어 하는 것이다. 內症은 배꼽 오른쪽에 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거나 통증이 있는 것이다. 肺病이 들면 숨이 차고 기침을 하며, 오싹오싹 寒熱이 있다⁴⁷⁾.

5. 太陰形에 대한 考察

1) 太陰形의 形象

靈樞 經脈篇에 “人經不同 經脈異所別也⁴⁸⁾.” 라 하여 사람마다 經絡의 分布에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形象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芝山이 六經形을 창안하였다고 본다. 芝山은 六經形을 “寒暑濕燥火가 虛邪를 얻지 못하면 홀로 사람을 傷하지 못하는 법인데, 虛邪의 風寒暑濕燥火가 身과 形의 兩虛한 기회를 얻어 즉 氣血이 虛하여서 客하는 것이기에 인체가 六氣로 인해 痼疾化된 것⁴⁹⁾”이라 정의하였다. 六經形중 太陰形은 太陰經이 발달한 사람으로, 多氣少血하며, 이목구비의 浮沈升降으로 보아 눈과 코의 기세가 모두 내려와서 下降하는 발현상을 가진 사람이다.

코가 내려갔다는 것은 배가 차다는 뜻이다⁵⁰⁾. 東醫寶鑑 大腸門에서 “코의 길이로 大腸을 살핀다.”고 하였다⁵¹⁾. 코가 길면 대장이 길다는 뜻으로 大腸에 병증이 생기기 쉽다.

2) 太陰形의 生理 및 病理

太陰은 脾가 本이 되어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며, 肺가 標가 되어 목구멍이 마르고, 눈과 온몸이 누렇게 된다.

太陰形은 太陰病의 症狀를 특징적으로 갖는다. 즉 명치끝이 자주 아프며, 大便을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뱃속에

32)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p. 134-135
 33)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29
 34)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35
 35)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30
 36) 脾經의 是動病은 舌本強, 食則嘔, 胃脘痛, 腹脹善噯, 得後與氣則快然如飢, 身體皆重하며, 所生病은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滿, 瀉·가泄, 水閉, 黃疸, 不能臥, 強立,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한다.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35)
 37) 肺經의 是動病은 肺脹滿, 膨脹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督, 此爲臂厥이며, 所生病은 咳, 上氣喘渴, 煩心胸滿, 膈胃內前廉痛厥, 掌中熱이다.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29-130)
 38) 이우태, 장부상통과 芝山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3): 617-623
 39) 『今釋黃帝內經素問』, 六元正紀大論, p. 744-745
 40) 太陰所至爲積飲否隔 太陰所至爲積滿 太陰所至爲否隔 霍亂吐下 太陰所至爲重附腫 (『今釋黃帝內經素問』, 六元正紀大論, pp. 747-748)
 41) 『今釋黃帝內經素問』, 太陰陽明論, pp. 318-319

42) 『今釋黃帝內經素問』, 太陰陽明論, pp. 318-9
 43) 外證, 面黃, 善噯, 善思, 善味, 內證, 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腹脹滿, 食不消, 體重節痛, 怠惰嗜臥, 四肢不收, 有是者脾也.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50)
 44) 『今釋黃帝內經素問』, 痿論, pp. 418-419
 45) 『今釋黃帝內經素問』, 玉機真藏論, p. 220
 46) 『今釋黃帝內經素問』, 太陰陽明論, 經脈別論, pp. 254-255
 47) 外證, 面白, 善噯, 悲愁不樂欲哭, 內證 臍右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喘咳, 洒淅寒熱.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57)
 48)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59
 4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p. 103
 50) 조성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p. 137
 51)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82

뭔가 그득하게 찬 것처럼 헛배가 불러올 때도 많고, 배가 자주 아프면서 토하거나 泄瀉가 심한 경우도 있다⁵²⁾. 또한 太陰腹痛은 內傷과 外感 즉 食積과 外邪를 겸하기 쉽고⁵³⁾, 寒濕이 주요병인이 된다⁵⁴⁾.

太陰形은 배가 虛寒하기 때문에 升發力이 약한 법이다⁵⁵⁾. 太陰病에 잘 걸리는 사람은 陰性體質로서 평소부터 足太陰脾經에 陽氣가 부족하므로 寒濕이 응체하고, 운화작용이 잘 되지 못하여 수분배설에 장애가 있어 자연 下痢하고, 脾臟이 寒하기 때문에 瀉하지 않는다.

太陰形은 脾臟病症이 많다. 太陰濕土로 인하여 몸이 무겁고 권태증이 나서 늙기를 좋아한다. 얼굴색이 누렇게 될 수도 있고, 脾主四末하므로 수족무력이 올 수도 있다⁵⁶⁾.

3) 太陰形의性情

太陰形은 현실위주로 살아가는 特性이 있다⁵⁷⁾. 언뜻 보기에 양쪽 눈매가 아래로 처져서 양순하고 善한 느낌을 주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며, 이기적이라 할 만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헛된 꿈을 꾸기보다는 實利를 따지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책임감있게 해내며,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간혹 깎쟁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⁵⁸⁾.

4) 太陰形의 병의 원인 및 處方

傷寒陰症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수실 때는 藿香正氣散, 人蔘養胃湯을 쓴다⁵⁹⁾.

內傷과 外邪가 겸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데 갈증이 없을 때는 理中湯, 四逆湯을 쓴다⁶⁰⁾.

비위가 虛冷하여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혹은 腹脹 嘔吐 泄瀉할 때 八味理中丸을 쓴다⁶¹⁾.

五臟六腑에서 脾臟자체가 나쁘면 益黃散, 補脾湯을 쓴다⁶²⁾. 多氣少血로 血이 부족하면 四物湯이나 清熱滋陰湯을 쓴다⁶³⁾.

太陰病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할 때 枳實芍藥散을 쓴다⁶⁴⁾.

太陰病의 黃疸에는 茵陳蒿湯을 쓴다⁶⁵⁾.

6. 太陰形의 임상례

본 임상례는 芝山先生 臨床學特講에 나온 임상례와 본디올 임상연구소와 본디올 수정한의원에서 치료한 사례들이다.

1) 임상예 1 - 남자 37세

52) 조성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p. 107

5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 189

5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p. 171

5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p. 171

5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p. 374

5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 189

58) 조성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p. 107

59)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071

60)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060

61)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211

62)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51

63)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45

64)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061

65)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061

(1) 形色 : 얼굴이 넓다. 색이 浮澤하다. 太陰形

(2) 脈 : 79 / 80

(3) 症

- ①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과 등이 아프다.
- ② 우반신이 저리다. 우측 위중혈에 힘이 없다.
- ③ 消化가 되지 않아 더부룩하고 대변이 무르다.
- ④ 전립선염으로 소변이 시원치 않고 정력도 약해짐.
- ⑤ 20 세부터 흰머리가 있고 30 세때 심해졌다.

(4) 治療 : 人蔘養胃湯⁶⁶⁾

(5) 考察 : 목이 아프다는 것은 濕으로 천지의 교합이 나빠진 것이다. 濕이란 不收不舒해서 천지를 교합시켜준다. 太陰인데 발산시키면 濕溫이 온다. 濕을 조절하는 약이 人蔘養胃湯이다⁶⁷⁾.

2) 임상례 2 - 여자 18세

(1) 形色 : 精科, 濕體, 面 浮澤

(2) 脈 : 75 / 75

(3) 症

- ① 손발이 많이 찬 편이며, 잘 붓는다.
- ② 시험시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泄瀉와 後重感이 있다.

③ 입맛은 있으나 소화가 잘 안 된다.

④ 배가 자주 아프고, 帶下도 많다.

(4) 治療 : 人蔘養胃湯

(5) 考察 : 人蔘養胃湯은 內외의 濕을 조절하는 약이며, 傷寒陰證을 치료하는 약으로 상기 환자는 外濕으로 얼굴이 浮濁하며 손발이 잘 붓고, 內濕으로 인해 소화가 잘 안되고 배가 자주 아프며, 泄瀉와 腹脹感이 있어 內외의 濕을 조절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3) 임상례 3 - 여자 27세

(1) 形色 : 精科, 입 발달

(2) 脈 : 90 / 90

(3) 症

- ① 몸살기운이 있고, 몸이 너무 무겁다.
- ②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다.
- ③ 배가 차고, 설사가 잦으며, 關元에 압통이 있다.
- ④ 생리통이 심하고, 입술이 마른다.
- ⑤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4) 治療 : 人蔘養胃湯 加 葛根 香附子 각 1돈 蘇葉 7푼

(5) 考察 : 코와 입의 관계에서 입이 발달했다는 것은 地氣가 盛한 것을 의미하고, 地氣는 濕과 연관되어 머리가 무겁고 몸도 무거운 전신적 증상이 나타난다. 地氣가 盛하면 우선 五積散을 생각할 수 있으나, 五積散은 배에 積이 나타나고 관골에 때가 끼일 때 쓸 수 있는 처방인데, 상기환자는 배가 차고 설사가 잦은 寒濕의 증상과, 外感으로 인한 頭痛과 몸살증상을 호소하므로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4) 임상례 4 - 여자 24세

66)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071

67)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 1287-1296, 2003

(1) 形色 : 太陰形. 魚際가 푸르다.

(2) 脈 : 72 / 70

(3) 症

① 頭痛

② 心下가 막힌 듯이 불편하다.

③ 소화가 잘 안되고 자주 설사한다.

④ 배가 더부룩하고 가끔 아프다.

(4) 治療 : 八味理中丸⁶⁸⁾

(5) 考察 : 魚際가 푸른 것은 배속이 냉한 것이다⁶⁹⁾. 脾胃가 虛冷하여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腹脹, 嘔吐, 泄瀉하는데 八味理中丸을 쓰며, 太陰形의 사람이 손이 차고, 배꼽주위가 아프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八味理中丸을 쓴다⁷⁰⁾.

5) 임상례 5 - 남자 58세

(1) 形色 : 코가 내림, 미릉골 약간 나옴, 面黃

(2) 脈 : 62 / 63

(3) 症

① 大便이 무르고 泄瀉를 자주 한다. (하루 2-3회)

② 젊어서부터 찬 것만 먹으면 泄瀉한다.

③ 윗배가 냉하다.

④ 추위를 많이 탄다.

(4) 治療 八味理中丸

(5) 考察 : 상기 환자의 코가 내려갔다는 것은 배가 차다는 뜻이다⁷¹⁾. 東醫寶鑑 大腸門에서 “코의 길이로 大腸을 살핀다.” 고 하였다⁷²⁾. 코가 길면 대장이 길다는 뜻으로 大腸에 병증이 생기기 쉽다. 배가 차기에 찬 것만 먹으면 설사하고, 늘 대변이 무르며, 추위를 많이 탄다. 따라서 내상의 太陰形에 쓰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6) 임상례 6 - 남자 16세

(1) 形色 : 얼굴이 흰 편이다. 太陰形

(2) 脈 : 76 / 74

(3) 症

① 코가 잘 막히고 냄새를 못 맡는다.

② 蓄膿症이다.

③ 혹 배가 아프다.

(4) 治療 理中湯⁷³⁾

(5) 考察 : 코라는 것은 風寒暑濕燥火의 조절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코가 막힌다는 것은 호흡의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얼굴이 희고 太陰形이므로 몸이 차서 코가 막히는 것이니 理中湯을 쓴다⁷⁴⁾.

7) 임상례 7 - 남자 45세

(1) 形色 : 走類, 面黃

(2) 脈 : 75 / 73

(3) 症

① 복통과 설사가 잦다. 과민성 대장증상 (내과치료를 일주일쯤 받으면 한 달 정도 괜찮다.)

② 식사가 불규칙하고, 저녁을 11시쯤 먹는다.

③ 사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④ 밤마다 다리가 저리다.

(4) 治療 : 理中湯

(5) 考察 : 코가 길면 大腸이 길다는 뜻으로⁷⁵⁾ 大腸에 병증이 생기기 쉽다. 상기환자는 코가 발달한 走類이고, 面黃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腹痛, 泄瀉같은 과민성대장증상이 잘 생긴다.

8) 임상례 8 - 여자 39세

(1) 形色 : 太陰形, 코와 입이 크다.

(2) 脈 : 96 / 86

(3) 症

① 左手4지부터 시작하여 발바닥, 무릎, 목, 어깨까지 전신이다 아프고, 걷지를 못하여서 업혀서 왔다.

② 소화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며, 미식거리고 어지러우며 중완이 아프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③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했으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양약을 복용중이다.

(4) 治療 : 平胃散 加 香附子 3돈 砂仁 神曲 麥芽 각 1돈 紫蘇葉 3돈 薑 376) / 개결도인환⁷⁷⁾

(5) 經過 : 20일후 내원하여 맥이 82/84로 나오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없어졌고 다리가 조금 덜 아프다. 다시 상기 처방대로 복용. 15일후 내원하여 맥이 80/78로 나오고 혼자서 걸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됨. 상기약 복용.

(6) 考察 : 太陰이란 不收不舒를 말하는데 太陰의 이르는 곳에 積飲과 痞隔이 생긴다. 痞라는 것은 천지가 교합하지 않으면 생기는데 痞가 오래되면 脹滿이 되기 쉽다⁷⁸⁾. 이 환자는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飲食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며, 大便이 묽거나 下痢를 하며, 小便이 막히고, 바로 눕지 못하고 몸이 굳어 겨우 일어나는 등의 脾經의 所生病 증상이 있으며⁷⁹⁾, 胃라는 것은 水穀과 氣血의 바다인데 手足의 運行에 의해 消化가 이루어진다. 이 환자는 脾胃가 나빠서 食積으로 인해 전신이 아프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므로 상기 처방을 썼다⁸⁰⁾⁸¹⁾.

9) 임상례 9 - 여자 56세

(1) 形色 : 太陰形, 얼굴이 길다.

(2) 脈 : 73 / 70

(3) 症

68)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11

69)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774

70)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 1590-1591, 2003.

71) 조성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p. 137

72)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82

73)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1061

74)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 1212-1221, 2003.

75)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282

76)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積이 되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할 때 쓴다. -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積聚門 食積, p. 1397

77) 식적이 돌아다녀 생긴 각기로 명치가 막히고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 -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脚氣門, p. 790

78)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 665

79)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 135

80)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 1608-1618, 2003.

81)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 189-191, 2003.

① 항상 명치끝이 무지특하고 소화에 문제가 있었다.

②腰痛이 좌측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고, 배에 힘이 없어 허리가 구부러진다.

③ 가끔 발바닥이 열이 나고 붉어진다.

④ 손발이 저리고 차갑다.

⑤痰飲形狀, 症狀이 있다.

(4) 治療 : 藿香正氣散⁸²⁾

(5) 考察 : 이 환자는 太陰形이니 多氣少血하며 中脘이 나쁘다. 中脘이 불편한 것은 太陰腹痛이니, 食積 아니면 外邪로 오는 병이다⁸³⁾. 손발이 차고 저리며, 소화가 안 되고, 답음형상이 있고, 요통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陰症이다⁸⁴⁾. 寒에서 濕이 생기고, 濕이 痰을 낳고, 痰이 熱을 낳으며, 熱이 風을 낳는⁸⁵⁾ 병리를 끼고 있는 사람이기에 風에 걸릴 위험이 높아 현재의 증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風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藿香正氣散을 쓰지 않을 수 없다.

10) 임상례 10 - 여자 44세

(1) 形色 : 太陰形, 面黃. 우울한 상, 魚際 靑, 觀骨 大

(2) 脈 : 83 / 82

(3) 症

① 찬 것, 매운 것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글부글 끓고 아프며 泄瀉를 한다.

② 한약을 조금만 먹어도 泄瀉를 한다.

③ 大便이 항상 무르고, 腹痛이 있다.

④ 수족이 차다.

(4) 治療 : 藿香正氣散 加 丁香 砂仁 良薑

(5) 考察 : 太陰形은 太陰病의 症狀를 특징적으로 갖는다. 즉 명치끝이 자주 아프며, 大便을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뱃속에 뭔가 그득하게 찬 것처럼 헛배가 불러올 때도 많고, 배가 자주 아프면서 토하거나 泄瀉가 심한 경우도 있다. 상기 환자는 어제가 푸르고 얼굴색이 누르며 太陰形이므로 속이 냉하여 소화가 좋지 않고 손발이 차며, 배가 자주 아프며 설사를 자주 하게 된다.따라서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11) 임상례 11 - 남 29세

(1) 形色 : 太陰形, 臍體, 近視, 눈에 힘이 없다.

(2) 脈 : 67 / 79

(3) 症

① 목에서 명치까지 답답하다. 무언가 걸린 느낌이 들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이다.

② 가슴이 답답하며 막힌 느낌이 든다.

③ 大便을 봐도 시원치 않다.

④ 간혹 아침 공복에 속이 쓰린 증상이 있다.

⑤ 복부가 나오면서腰痛이 생겼다. 우측 다리가 당기고 불편하다.

(4) 治療 : 藿香正氣散

(5) 考察 : 脾臟의 所生病을 살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

며, 心下에 급작스런 痛症이 오며⁸⁶⁾, 太陰의 이르는 곳에 積陰과 痞隔이 생긴다고 하였다⁸⁷⁾. 太陰形은 본래 升發力이 약한 편인데, 이것은 中脘이 막혀서 일어나는 현상으로⁸⁸⁾ 상기 환자는 大便을 봐도 시원치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막힌 느낌을 가지고 있어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⁸⁹⁾.

12) 임상례 12 - 여자 53세

(1) 形色 : 面黃. 肥人이며 太陰形이다.

(2) 脈 : 78 / 76

(3) 症

① 手掌熱하고 작년에 좌 반신마비가 발생함.

② 화를 잘 내고, 피로하고 눈이 침침하고,腰痛 膝痛이 있다.

③ 다리 뒤편으로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다. 소변, 대변을 자주 본다.

④ 몸이 무겁다.

(4) 治療 : 星香正氣散

(5) 考察 : 星香正氣散은 성질이 暴怒하여 이런 증상이 오는 경우에 쓴다. 살찐 사람에게 中風이 많다는 것은 살찌면 주리가 치밀하여 氣血이 막힐 때가 많아서 氣血이 통하기 어려우므로 갑자기 쓰러진다. 氣가 겉에는 盛하지만 속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藿香正氣散에 南星 木香 防風 當歸를 넣어 쓴다.⁹⁰⁾ 太陰이니까 太陰腹이 떠 두른 듯이 불편하다. 맥이 78/76으로 양쪽에 걸쳤으니 藿香正氣散類를 쓰면 中風증상이 없어질 것이다. 類中風이지 眞中風이 아니다. 中焦가 막혀서 숨이 차고 답답한 것이다. 心下 痞滿이 없어져야 手痺症이 없어진다⁹¹⁾.

13) 임상례 13 - 남자 11세

(1) 形色 : 面微白, 눈에 힘이 없다.

(2) 脈 : 80 / 80

(3) 症

① 배가 아프고 가스 차고, 大便을 지린다.

② 소심하고, 밥 먹고 눕기를 잘 한다.

③ 미식거리고 구역질을 자주 한다.

④ 많이 걸으려 하지 않고, 놀다가 쉽게 지친다.

⑤ 어려서부터 기침을 많이 한다.

(4) 治療 : 補脾湯⁹²⁾

(5) 考察 : 血氣가 왕성해야 할 나이인데 눈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精氣가 약한 것이다, 精氣를 돋우는 약을 쓸 수도 있지만, 症狀를 살펴본 결과 脾虛의 증상인 배가 불러 오르고 소화 안 되며,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많다⁹³⁾. 補脾湯은 脾臟이 虛

86) 『今釋黃帝內經靈樞』, 經脈, p.135.

87)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665.

88) 『芝山先生臨牀學特講』 II, p.167.

89)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236-241, 2003.

90)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寒門, 肥人多中風, pp.9, 86-87

91)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795-797, 2003.

92)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251

93)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p.250

94)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506-510, 2003.

82)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寒門, p.1071.

83) 『芝山先生臨牀學特講』 IV, p.150.

84)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寒門, p.1070.

85)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風門, 熱生風, p.986.

하고 차서 嘔吐와 泄瀉를 하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치료 하는 약이기에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⁹⁴⁾.

Table 2. 증례 분석표

번호	성별 나이	형색	맥	증상	처방	고찰
1	남 37	얼굴이 넓다. 浮澤 太陰形	79/80 비·소장·담	목디스크 소화안되고 대변무르다.	인삼양위탕	습조절
2	여 18	정과, 습체, 浮澤	75/75 비·소장·담	잘 못는다. 배가 아프고 설사 자주함	인삼양위탕	내외습 조절
3	여 27	정과, 입 발달	90/90 심·담·담	몸살기운, 배가 차고 설사	인삼양위탕 감모방	한습과 외감
4	여 24	太陰形 어제 푸르다.	72/70 비·소장·방광	자주 설사, 배 더부룩 하고, 복통	팔미이중환	비위 허냉
5	남 58	코 내림, 면황	62/63 신·심초·방광	찬것 먹으면 설사	팔미이중환	배가 차다.
6	남 16	면백,太陰形	76/74 비·소장·방광	코 막힌다.	이중탕	몸이차 서 코 막힘.
7	남 45	주류, 면황	75/73 간·대장·담	복통과 설사	이중탕	과민성 대장증 상
8	여 39	코와 입이 크다. 太陰形	96/86 심·담·담	걸지 못함. 중환 업통	평위산 가감, 개결도인환	비위가 나빠 식적 때문.
9	여 56	얼굴 길다. 太陰形	73/70 비·소장·방광	수족 차다 소화 안됨	곽향정기산	음중, 식적, 외사
10	여 44	면황, 魚際青, 太陰形	83/82 포·위·방광	手足冷, 泄瀉 頻	곽향정기산 가미	태음병 의 증상
11	남 29	太陰形, 담체 눈에 힘없다	67/79 신·심초·담	기슴 답답, 대변이 시원치않다.	곽향정기산	비의 소생병
12	여 53	면황, 肥人, 太陰形	78/76 포·위·방광	좌반신마비, 易怒, 身重	성향정기산	비인다 중풍
13	남 11	면 미백, 눈에 힘이 없다.	80/80 비·소장·방광	대변지림, 잘 눕는다.	보비탕	비허

결 론

黃帝內經, 東醫寶鑑,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을 참고로 하여 太陰經 및 太陰形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太陰의 특성은 濕이고, 土와 연관되며, 中央이다. 太陰은 濕이 本이고 燥는 標이므로 脾와 肺중 脾經의 생리, 병리가 우선이 된다. 太陰形은 五臟六腑보다는 經絡이 중심이 된 형상이므로 장부의 內外症보다는 是動病과 所生病이 중요시된다. 六經形중 太陰形은 눈과 코가 모두 내려오는 형상으로 太陰病의 증상을 특징적으로 갖는다. 太陰形의 性情은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며, 성실하지만, 이기적인 면도 있다. 太陰形의 임상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太陰形은 脾經의 生理, 病理가 우선이며, 또한 五臟病보다 是動病과 所生病이 많고, 濕과 土에 관련된 질환이 많다. 太陰形의 경우 傷寒 陰證으로 外感和 內傷 증상이 겹치면 藿香正氣散, 人蔘養胃湯을 쓰며, 太陰病으로 속이 냉하여 배가 아프고 泄瀉하는 증상에는 理中湯, 八味理中丸 등을 주로 사용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Grant No. B070022)"

참고문헌

1.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pp 506-510, 2003.
2.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 VII. 서울, 芝山出版社.
3. 배병철 역. 금석황제내경소문. 서울, 성보사, 1995.
4. 배병철 역. 금석황제내경영주. 서울, 성보사, 1995.
5. 양상선. 황제내경 태소. 서울, 대성문화사, 1991.
6. 조성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서울, 도서출판 명상, 1998.
7. 허준 저. 대역동의보감.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8. 강경화, 김형규, 이용태. 형상의학적 관점에서 본 경락이론의 임상활용. 대한경락경험학회지 21(1):149-174.
9. 백근기,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3):424-434.
10. 이용태. 장부상통과 芝山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3):617-623.